과거 악업 소멸로 극락왕생 발원

양주 청련사, 생전예수시왕칠일재 봉행

10월 14일 7재 회향법회
5시간 넘는 불교의식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져

양주=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가 과거의 전통방식을 그대로 보존 · 계승한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생전예수재는 과거의 악업을 소멸하고 현재의 평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천도재로도 일컬어진다.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는 10월 14일 경내에서 생전예수시왕생칠일재 회향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관욕의식, 괘불이운과 신중작법, 조전점산, 금 · 은전 이운과 음성공양에 이어진 예수재로 거행됐다.

청련사 예수재는 무려 5시간을 넘게 진행되는 의식이다. 상진 스님의 집전으로 전통 그대로를 구현하는 동시에, 모든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자들이 과거의 전생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악업을 소멸하고 부처님전에 참회하며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법석으로서 의미를 더한다.

청련사 주지 상진 스님이 법주, 벽산 스님이 인례, 거진 스님이 바라지를 맡은 가운데 합동천도재도 거행됐다.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과정이다.

'덩더쿵' 도량순회는 청련사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엄숙하게 이어지는 여타 법회나 의식과 달리, 철저하게 고증된 의식 속에서 흥겨운 음악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도량을 순회하며 탑돌이를 하는 방식이다. 명부시왕각청을 모실 때 작법승과 악단을 인도하던 벽산 스님이 징을 치기 시작하자, 스님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동참대중은 시왕번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악업을 소멸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인만큼, 엄숙함보다는 대중들의 환희심을 표현하는 청련사의 전통적인 의식이다.


양주 청련사는 10월 14일 경내에서 생전예수시왕생칠일재 회향법회를 거행했다.

동참 대중들이 금은전이 담긴 경함을 이운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천수경〉 독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마치자 대중들이 금 · 은전이 담긴 경함을 머리에 올린 채 신중한 발걸음으로 고사단을 향했다. 모든 대중이 머리 위에 경함을 올린채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심의 상징이다.

본격적인 생전예수재는 합장게와 복청게, 천수바라와 도량게, 법고의식, 상단예불로 시작됐다. 위패와 장엄물 등을 태우며 법회의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봉송과 회향이 시작됐다. 동참대중은 금은전과 경전이 불속에서 타올라 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덕을 쌓고 번뇌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다.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이 같은 고유한 의식의 가치와 전통의 계승을 인정받아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주 상진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내가 고통 받고 힘든 이유가 모두 우리의 업장임을 잊고 산다"며 "생전예수재는 과거의 업장을 청산하고 좋지 않은 묵은 습을 소멸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평안하게 마주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련사는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정성스러운 방식으로 매년 생전예수재를 봉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련사는 이를 위해 도제 양성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배출된 인원만 600여 명에 달한다.

108나한 다례재 봉행

무등산 약사사 10월 12일
나한전 건립 10주년 기념

무등산 약사암(주지 무진)은 지난 10월 12일 나한전 건립 10주년을 기념해 다례재를 봉행하고, 무등산 중요 기도처로 알려지고 있는 108나한에 대한 공덕을 찬탄했다.

가을비가 내리는 중에도 대웅전과 나한전에서 봉행된 다례재에는 회주 범종 스님(송광사 수좌)을 비롯해 무진 스님, 신도회 등 1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새로 간행된 약사암 법요집과 천도의례집을 부처님께 봉정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봉정식, 육법공양(문수월 외), 법문, 축하공연(사랑무), 봉헌시 낭송(고순남), 축하공연(달맞이 무용), 사홍서원 등이 진행됐다.

범종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도 깨달음을 통해 너도 나도 모두 부처님이다. 모두 다 언젠가는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종교이다"라고 격려했다.

주지 무진 스님은 "나한전은 2011년 점안식을 봉행했다"며 "앞으로 신도들의 좋은 기도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암사 역대선조사 추모 추다례

태고총림 선암사, 10월 14일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는 지난 10월 14일 경내 진영당과 응진당 앞마당에서 선암사 역대 선조사님들을 추모하는 추다례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추다례에는 태고총림 방장인 지암 스님을 비롯해 선원장 상명 스님, 주지 시각 스님과 소임자 스님, 문도스님,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암 스님은 "오늘 날씨가 좋은 것은 선조사님들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선암사가 더욱더 안정되고 여러 사중스님들의 신념이 부처님께 전해져 선암사가 계계승승하기를 기원드린다"고 격려했다.

주지 시각 스님은 "선암사 선조사님들께 다례를 올리는 소승의 마음은 조계종과의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응어리가 있다"며 "응어리가 하루빨리 풀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불보살님께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다례의식은 선조사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그 어른들의 법이 계계승승하기를 바라는 법석"이라고 "잘 잇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암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역대조사들을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요리대회' 개최

어청련. 10월 9일 사찰음식 주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즐기는 요리경연대회가 10월 9일 사찰음식체험관에서 열렸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대표 동천)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련 광주지구(대표 지장)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 참여해 '자연아 행복해' 라는 주제로 채식요리를 만들어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경연대회에는 9개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천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이송희 자비신행회 대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경연과 심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불교의례에 이어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소개, 요리만들기,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1시간여간 진행된 열띤 요리 경연 결과, 1등 붓다상에 김범수 가족, 문수상에 조재익, 보현상 장민경, 사리불상 이성원, 목건련상 김새봄, 마하가섭상 이지후, 아나율상 박진우, 아난다상 정유정 가족 등이 각각 선정됐다.

엄마, 형들과 함께 제철 과일인 사과로 '애플파이' 를 만들어 대상인 '붓다상' 을 수상한 김범수(10) 군은 "자연은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어 살아갈 수 있게 했다"며 "그래서 그 계절에 나오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0월 9일 사찰음식체험관에서 열린 경연대회.

한편 동련 광주지구는 지난 2018년부터 가족들이 참여하는 요리법회를 매월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3년 가까이 요리법회에 참여한 가족들의 경연형식으로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불사, 금강역사상 점안법회 봉행

10월 13일 전통방식으로 점안의식 거행해 '눈길'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10월 13일 석조금강역사상을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로써 성불사는 금강역사상 조성과 석등불사, 불교성전 봉안 불사, 목조 대문 불사 등 창건 40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예정된 불사를 마무리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영산 스님, 법진 스님, 현진 스님이 불교전통방식으로 점안의식을 거행했으며,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과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 50여 명만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번에 조성된 금강역사상은 밀적금강과 나라연금강상으로 각각 높이 150cm 좌대 50cm로 불보살님들과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성불사의 성보문화재인 석가여래 행적송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석등 2기를 입구 좌우측면에 봉안해 도량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전법의 등불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스님이신 벽송당 재훈 스님께서 전법과 포교의 도량으로 성불사를 창건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해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성불사는 10월 13일 석조금강역사상을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한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비로소
말다운 말 행다운 행을 할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어떤 급한일이 있어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대인을 만든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Tel 055)342-6639, 345-9900 Fax 055)346-2179